



나의 일터



한국수미다전기(주)

김 정 자

집단 보건관리 체제하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이란 특정 구역내 속해 있는 한국수미다전기에 입사하여 보건관리 요원에서 보건담당자란 이름으로 바뀌는 동안 상담실과 보건업무를 담당한 생활이 어언 10년이 가까와졌다.

2,000명이 넘는 여자 종업원에 비해 100명 안쪽의 남자 사원들로 구성되어 과히 여자천국을 실감케한다. 그들 전부의 언니로서…….

작은 상처로 아파하는 것부터 두통, 복통, 생리통 등……감수성 예민한 심리적 갈등까지 헤아려 줘야 하는게 나의 본분이다. 뒤돌아 보면 바로 엇그제 일과 같이 느껴지는 술한 사원들의 점철된 얘기들은 한 권의 책으로도 묶을 것 같다.

근무 중 갑작스런 발병으로 응급 수술을받아야 했던 종업원, 또 집에서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잠을 못자다며 회사로 출근하여 쓰러진 그녀를 P병원으로 수송하던 일(자궁외임신이였다) 그리고 출근길에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10여일 괴로운 신음끝에 숨겨간 야간학생이었던 그녀와 사귀던 군인의 편지가 죽음을 모르고 있어 가슴아파하기도 했다. 또 두통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 애용자를 붙잡고 두통 원인을 같이 분석하여 약을 안먹고 안아프는 처방법을 설득하여 돌려보내고 후에 만났을때 “언니! 이제 약 안 먹어요”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보람이구나 싶은 작은 감동으로 흔들리는 나를 진정시킨다.

며칠전의 일이다. 기계작업 중 스톱스위치를 하지 않고 손을 넣어 오른쪽 손가락을 약간 다쳐서 왔다. 소독 솜으로 닦고 붕대를 처매고 있는데 멀쩡하던 애가 메스껍고 어지럽다며 거듭 중얼거리더니 핏기없는 하얀 얼굴로 변해버린다. 작은 상처였지만 마음이 심약해 상처의 충격으로 단순한 현기증을 유발시키는 줄로만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숨을 킁킁 몰아쉬며 부르르떨고 흔들리는게 약 1분 정도의 발작이었다. 걸상에 앉은 채로여서 벽에 몸을 기댄채 어깨를 잡아주고 당황했지만 다행히 짧게 끝나고 눈을뜨며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왜 왔느냐고 깜짝 놀라며 식은 땀이 비오는듯하는 그녀를 베드에 눕히고 물수건해서 두통약까지 먹인 후 떠들떠듬하는 말 종합해보면 중고등학교때 여러번 반복했으나 사회생활 하고서는 처음이란다. 중1때 좋아하던 고모의 주검을 목격하고 쓰러진 이후부터 그런것 같다며 발작전에 반드시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 이후는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할 수 없다는 그녀와 면담을 통해 내가 할수있는 만큼의 설득력으로 정신신경과 전문의 처방을 받도록 종용할 수밖에…….

자기가 맡은 일은 착실히 책임감있게 일 잘하는 모범사원임을 반장은 껏뜸해준다. 소속과

과장님께 기계 작업보다 앉아서 하는 수동작업에 배치를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건의 하면서도 마음은 심란해진다. 나라도 그녀라면 단지 의식 밖의 나를 난들 어찌란 말이냐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렇듯 한결같이 어디가 아프고 또 어딘가 경미한 상처나 불편함을 가지고 쩡그리며 나를 찾아오는 그들을 따듯이 맞을 수 있는 자애로움과 또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항시 길들여져 있음을 요구한다. 하다보면 어느새 짜증스런 나의

언동에 스스로 놀래어 자각해야 하나까…….

어쩔수 없는 보통의 인간성에 고소를 머금으며 다만 반성할 줄 알고 빛이되는 삶을 추구할 뿐이다.

오늘도 나의 하루가 흐르는 이시간 정기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결핵으로 인해 근무하면서 꾸준히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빠른 회복을 기도해 본다.

하여 오직 나의일에 열성을 다하여 전력투구할 뿐이다.

마 음 이 메 무 는 길 목 에 서 11

우린 곰새끼의 뒷새끼가 아니다



곰은 웬지 게으르고 미련하고 천덕스런 뉘앙스를 준다. 이 지구상에 북극곰, 반달곰 불곰에 말레이시아곰까지 여러 곰이 있다는데, 어느놈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게으르게 외톨로 살아가는 雜食性 哺乳動物이다. 기껏 새끼사랑으로 바윗돌을 안고 서서 화살을 받는다는 그런 옛얘기나 있을까, 팬더君에게는 좀 미안스런 말이지만 웅담 한가지 말고는 진짜 별볼일이 없는 짐승이지 싶다.

헌데, 맹랑하게도 우리역사의 첫머리에는 이 곰님이 이만저만 굉장한 아가씨로 등장하는게 아니다. 遺事에 古記云으로 시작되는 옛일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무엄챙 피막심하게도 성스럽고 영광스런 하느님(桓因)의 아드님(桓雄)의 둘도없는 짝궁님이 바로 요 아둔깜깜하기 이룰데 없고 천덕꾸러미런탱이인 곰네-아무리 艾一炷 蒜二十枚에 換骨仙女했다대도-가 아닌가.

아이구 하느님 맘시사, 그래 하고많은 멋있는 짐승들 다 놔두시고 하필이면 곰,내 좋아 하는 영명늪늪한 범님까지 앓은자리서 착 제껴버린 그 왁쌈스런 곰을 곰성덕성스러워야